

“무기계약직 전환때 시험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전남도, ‘현대판 읍서제’ 개선안 정부에 건의키로

10개 시·군 감사 후 자체 대책 수립 예정

전남도가 ‘현대판 읍서제’로 전락하고 있는 시·군 무기계약직(광주일보 6월1~5일 1·3면)과 관련 채용 과정에서의 경쟁 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작성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채용이 각 시·군의 인사권에 해당해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8일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

약직 채용과 관련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10개 시·군 감사 후 자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시험 등 경쟁방식 도입 ▲기존 정규직 일부 업무 무기계약직과 분담 ▲무기계약직 채용 인원 및 인건비 공제 ▲기준인건비 초과시 교부세 패널티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로 분리돼 있어 이에 대한 업무 조정도 요청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기준인건비를 통해 이를 억제하는 등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 없이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특히 논란도 일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절차 마련에는 소극적이고, 관련 예산을 억제하면서 ‘음성적인’ 채용 형태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으로 인해 향후 각 시·군의 인력 운용 및 인건비 지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관련 중앙부처가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광양시·무안군·고흥군·곡성군 등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목포시·완도군·구례군·보성군·함평군·영광군 등 6개 시·군은 하반기까지 감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윤장현 시장 중앙부처 방문 국비확보 안간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등 지원 요청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6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잇따라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설명과 지원요청을 하는 가운데 자체 보고회를 통해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윤 시장은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를 잇따라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윤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기반 조성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민중·인권·평화컴플렉스 조성 ▲광주송정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수소·전기자동차

복합충전시스템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에서는 ▲경전선(광주~순천 간) 전철화 ▲무진로~임방울로 연결로 개선 ▲백운관교 교차로 개선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윤 시장은 환경부로 자리를 옮겨 윤성규 장관과 면담하고,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와 초기 우수 통합관리 비점오염 저감사업, 그린빛길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채희종기자 chae@



U대회 성화 봉송하는 피에스타 재이

그룹 피에스타 멤버인 재이가 8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봉송 행사’에서 성화를 들고 달리고 있다. 4일 제주도를 밝힌 성화는 8일 인천시청을 출발점으로 해 수도권 봉송을 시작했다. 명지대를 지나 서울시청에 도착한 성화는 9일 한양대로 이동한다. 이후 차량을 통해 성남-수원-화성-평택 구간을 달리는 성화는 10일 오후 천안에 도착해 하루 머물게 된다. 성남에서 평택까지의 구간은 총 158.5km로 당초 40구간에 200명의 봉송주자가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수도권을 강타한 메르스로 인해 차량으로만 성화를 봉송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남국방벤처센터 순천 테크노파크에 9월 개소

김광진 의원 유치 기여

전남도는 8일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이낙연 전남지사, 이현근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국방분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국방벤처센터 공동 설립·운영 및 전남지역 방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 출연 비영리기관이다. 우수기업 및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전주, 대전, 광주, 구미에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했다. 전남국방벤처센터는 9번째다.

그동안 전국 8개 국방센터는 200개 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지원해 지금까지 67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했다.

전남국방벤처센터는 오는 9월 순천에 소재한 전남테크노파크에 개소할 예정이다. 전남지역의 철강, 조선, 생물, 에너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군 사업과제 발굴, 경영 및 기술 지원, 국방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통해 국방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는 국방분야 진입 희망 기업 수요 파악을 위해 두 차례 설명회를 갖고, 국방사업 적극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 43개 업체를 발굴한 바 있다.

한편, 국방벤처센터 순천 설립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비례) 의원이 큰 기여를 해왔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과 함께 토론회 등을 여는 등 국방벤처센터 순천설립을 적극 추진해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출몰 00:07
해질름 19:46 달지름 11:54

다시, 햇빛
서해상의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린 뒤 맑음	18/31	보성	흐린 뒤 맑음	16/29
목포	흐린 뒤 맑음	17/26	순천	흐린 뒤 맑음	18/30
여수	흐린 뒤 맑음	18/25	영광	흐린 뒤 맑음	17/27
나주	흐린 뒤 맑음	17/31	진도	흐린 뒤 맑음	17/26
완도	흐린 뒤 맑음	17/29	전주	흐린 뒤 맑음	18/30
구례	흐린 뒤 맑음	16/31	군산	흐린 뒤 맑음	17/25
강진	흐린 뒤 맑음	17/30	남원	흐린 뒤 맑음	16/30
해남	흐린 뒤 맑음	17/29	홍산도	흐린 뒤 맑음	16/22
장성	흐린 뒤 맑음	16/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북동 1.0~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북동 1.0~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03	12:19
	19:26	23:33
여수	밀물	썰물
	01:40	08:02
	14:13	20:05

◇주간 날씨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	☁	☁	☀	☀	☀	☀
18/32	19/24	19/30	19/29	18/30	18/30	18/30

◇생활지수

식중독	68
운동	40
빨래	50

원전 2기 추가 건설한다

강원도 삼척·경북 영덕 거론

논의 과정 진통 따를 듯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보다 5배 늘리고 소규모 발전설비인 분산형 전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은 9월 사업자설명회, 18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현재 건설이 확정된 전력설비는 13만3684MW다. 적정 전력설비에 새 건설이 확정된 설비를 빼면 2869MW가 부족한다.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이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강원도 대진(삼척)과 경북 천지(영덕)가 우선 거론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전 1·2호기’ 또는 ‘천지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 선정은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원전 건설에는 통상 10년이 걸린다.

/연합뉴스

원전 후보지 최종 결정까지는 3년 가량 시간이 남았지만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경북 영덕이 최종 후보지로 낙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척은 인구가 영덕보다 많고 반대 여론이 높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앞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고리 7·8호기를 대신해 영덕에 천지 1호기(2026년)·2호기(2027년)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벌써부터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에 강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녹색당은 “영덕이든, 삼척이든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철거를 염원하는 삼척과 영덕 주민들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주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지난해 전력수요가 0.6% 성장하는 데 그친 것을 구조조정이 아닌 수요관리와 기성조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미래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해 기본 전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인 코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자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